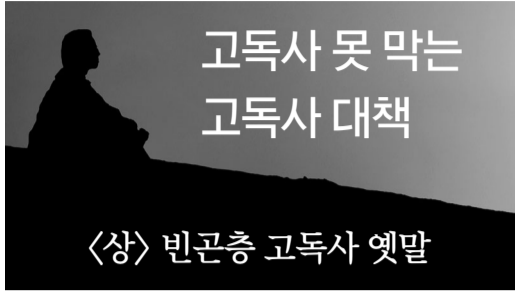


# 경제력 있어도 외로운 삶...나홀로 쓸쓸한 죽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에도 적용되고 있다. 빈곤층의 불행으로 인식됐던 고독사가 경제적 여유를 가진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고 있다. 고독사가 1인 가족 시대, 사회와 단절 등 세태를 반영하는 ‘사회적 죽음’이 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정부 지자체의 대책에도 끊이지 않는 고독사의 문제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코로나 거치며 사회적 관계 고립 비혼·황혼 이혼에 1인 가구 늘어 광주·전남 고독사 끊이지 않아 빈곤층만의 문제 아닌 사회 문제 국가·지자체 더 꼼꼼한 관심

‘고독사(孤獨死)가 변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과거의 고독사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독거노인의 사망이나 무연고 사망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민들도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족단절, 사회적 고립이 한층 심화돼 고독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주택에서 월남전 참전용사 A(70)씨가 홀로 숨져 10일만에 발견됐다. 지난 6일에는 순천시 향동의 한 빌라 안에서 발달장애인 조카를 돌보던 B(여·78)씨가 숨졌지만 오랜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친·인척이 타지에 살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일정 시간 동안 주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누구도 이들의 쓸쓸한 죽음을 알아채거나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 사회적 고립을 택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고독사의 변화에 원인으로 꼽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혼·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광주지역 1인 가구는 2018년 17만 4614가구(30.2%)였지만 지난해에는 22만 1464가구

(35.5%)로 4년 새 약 5만 가구가 늘었다. 전남 역시 2018년 23만 5062가구(31.9%)에서 지난해 28만 3429가구(36.1%)로 증가 추세다.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께 순천시에서는 남성 C(61)씨가 폐가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의 죽음은 여수에서 절도범이 붙잡히면서 확인됐다. 절도범이 폐가에서 숨겨 있는 C씨 옆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미혼인 C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 복지지원대상자도 아니고 폐가 인근 일반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 C씨는 11일 전쯤 이웃주민에 의해 폐가에서 목격됐다. C씨의 어머니와 형제가 타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실종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과거 고독사 위험군 비율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높았지만 이제는 청년 1인 가구도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광주에서 발생한 111건의 고독사 중 50대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는 1건, 30대 9건, 40대 19건에 달했다. 70대 이상은 15건에 그쳤다. 젊은 층의 고독사의 원인으로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극단 선택이 꼽히고 있다. 청년층은 취업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자발적 고립, 중년층은 실업과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노년층의 경우 낮은 건강 상태와 경제적 빈곤, 사별 등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독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관계의 단절, 개인주의적 성향 등으로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사건 브로커’ 뇌물 전달 혐의 전직 경찰관 구속

### 인사권자에게 수천만원 건네

‘사건 브로커’를 수사중인 검찰이 인사 청탁을 위한 뇌물 전달 혐의로 퇴직 경찰관을 구속했다. 이로써 사건브로커 성모(62)씨와 관련해 현직 검찰 수사관 1명과 전직 경찰관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의 현금을 받아 인사권자 측에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퇴직한 A 전 경찰관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전 경찰관은 지난 2021년 전남지역 경찰관 B경위가 ‘인사권자에게 승진청탁 명목으로 전달해달라’며 건넨 현금 수천만원을 C 전 경찰관(구속)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은 C 전 경찰관이 이를 사건브로커 성씨를 통해 지난달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D 치안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씨는 수사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D치안감은 전남경찰청장 재임(2020년 8월~2021년 12월) 당시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A 전 경찰관에 인사청탁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경위는 지난 2021년 인사에서 검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청탁 비리와 관급비리 수주 등에 관련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딸에게 맞은 장애인 동생 방치, 숨지게 한 부부 징역 6·2년형

자신들의 딸에게 폭행당한 지적장애인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부부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63)씨에게 징역 6년, B(68)씨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친딸 C(35)씨가 여수시 한 모텔에서 이모 D(60·지적장애)씨를 수차례 폭행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의 동생인 D씨는 A씨 아버지가 입양한 동생으로 2011년 계부터 A씨 부부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객실정소·빨래 등 허드렛일을 해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씨가 병원에 입원하자 C씨(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는 D씨가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8차례에 걸쳐 얼굴,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당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D씨에게 일을 시키고 사망하자 몰래 장례를 치르려다 발각됐다. 이들 부부는 유기치사 혐의가 없었으며 D씨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딸이 D씨를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선냄비, 사랑으로 채워요 17일 광주시 동구 총창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한 여학생이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구세군 모금활동은 24일 까지 계속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깨어보니 아내 숨져 있었다’는 70대 12년형 선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숨져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정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고흥군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살해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워 상해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경제적 이유로 인한 살인이라고 보고 살인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동거하던 B씨가 자신의 수입을 모두 써 버리고 10여년 동안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몰래 중도 해약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해지금을 사 용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후 A씨는 노인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 대한 불만이 더 커졌다. A씨는 술에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감시 증거 등을 보면 고의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연민을 보인 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수 목 장

